Savoir sans Frontières

http://www.savoir-sans-frontieres.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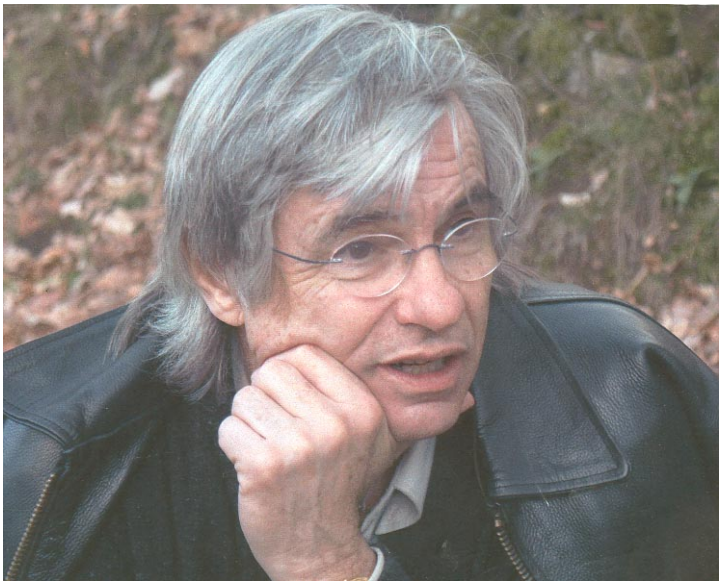
신데렐라 2000

Jean-Pierre Petit

사부아르 상 프롱띠에르

1901 년 협회법
Villa Jean-Christophe, 206 Chemin de la Montagnère, 84120 France

동호회장 : 장 피에르 쁘띠 Jean-Pierre Petit



전 Cnrs 천체 물리학 연구원장인 장피에르 쁘띠씨는 과학 만화라는 새로운 장르의 창시자로, 2005 년 20 여 편에 이르는 그의 작품들을 무료로 자신의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일반인들의 이용을 가능케 하였다.
한편, 과학적, 기술적 지식을 무료로 세상에 널리 알리고자 하는 목적으로 사부아르 상 프롱띠에르(국경 없는 지식) 라는 동호회를 창시 하였다.
현재, 이 동호회는 기부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 기부금은 번역가들의
사례금 (150 유로)으로 쓰이고 있으며, 매일 수많은 그의 작품들이 이 사이트를 통해 전세계 언어로 번역되고 있다. (2005 년, 라오스어와 르완다어를 비롯해 18 개 국어)
현 PDF 파일은 상업적 목적이 아니라는 전제하에, 교사들의 수업 중에 일부 혹은 전체적으로 발췌되어 사용될 수 있으며, 또한, 시립도서관과 대학도서관에서 인쇄물이든, 컴퓨터 전산망이든 어떠한 형태로도 이용이 가능하다.
저자는 가장 읽기 쉬운 앨범(12 세) 콜렉션부터 작업을 시작하여, 현재는 문맹자들을 위한 « 음성 스피치 » 작업과, 외국어 학습을 위한 « 두 가지 언어 » 서비스를 위한 작업에 한창이다.
동호회는 수준 높은 기술용어를 모국어 수준으로 구사할 수 있는 번역자 발굴에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06 년 동호회의 재정자금은 새로운 번역가들을 위해 쓰여지고 있으며, 여러분의 기부금(Savoir Sans Frontière 앞 수표)을 기다리고 있다.

번역인 소개

차 지영, 1979년 출생으로 현재 빠리에 거주 중이며, 부산외대에서 불어학을 전공하였고, 프랑스 Angers 대학에서 프랑스 문화·예술 국제 매니지먼트 석사 학위 취득하였음.
주한 불란서 회사와 주불 한인 기업 법인에서 통번역 및 법인장 비서로 일한 바 있으며, 불한 통번역 프리랜서로 활약 중.
SAVOIR SANS FRONTIERES 협회의 전세계 무료 지식 전달이라는 취지에 매력을 느껴 장 피에르 쁘띠씨의 과학 만화의 한글 번역작업에 적극 동참하게 되었음.

LA TRADUCTRICE, CHA JI YOU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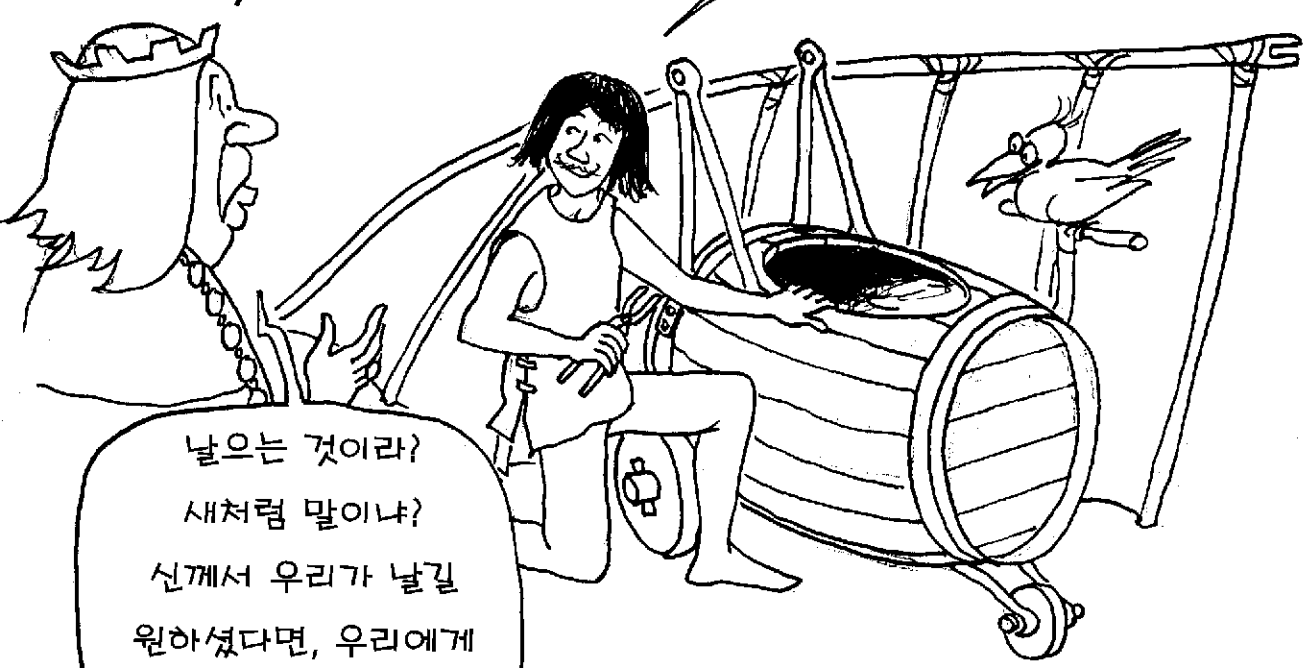
ji-young.cha@wanadoo.fr

Je suis née en 1979 et j'ai étudié le français à l'Université des langues étrangères de Busan en Corée du Sud avant d'obtenir un DESS de management international des arts de la France à l'ESTHUA d'Angers. Je réside actuellement à Paris et après plusieurs expériences professionnelles en tant qu'interprète et assistante de direction dans des sociétés coréennes je me suis lancée dans la traduction des bandes dessinées de Jean Pierre PETIT pour l'association SAVOIR SANS FRONTIERES. Je suis très heureuse d'avoir participé à cette diffusion généreuse du savoir, dans toutes les langues de la planète.

지금껏 어떤 어려움도 겪지 않았던 어느 한 왕국.
조지왕에게도 근심이 하나 있었는데...

필립왕자,
대체 거기서 무얼하고 있는
건가?

저... 날으는
기계를 만들고 있사옵니다,
아바마마,



날으는 것이라?
새처럼 말이냐?
신께서 우리가 날길
원하셨다면, 우리에게
깃털을 주셨을
게다,

박쥐들은
깃털이 없지만,
새들처럼
잘도 하늘을
날고 있지
않사옵니까,

그들과 같은 날개를 만드는 것은
아주 간단하옵니다,
다만, 한가지가 부족한데,
그건 바로 움직이는 힘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기적처럼 그들을
하늘을 날 수 있게 하는 걸까요?

네가 아직까지 신부감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느냐?
이젠 이 왕국을 너에게 물려줄 때도 되었고, 나도 점점 더 늙어가고 있다.

예, 아바마마. 그러하오나,
남자와 여자가 사랑을 하려면
무언가 공통의 관심사가 있어야
하지 않겠사옵니까.
허나, 아바마마께서 소개시켜 주신
여인들은 하나같이 날으는 기계에
관해선 전혀 관심이 없어 보였
사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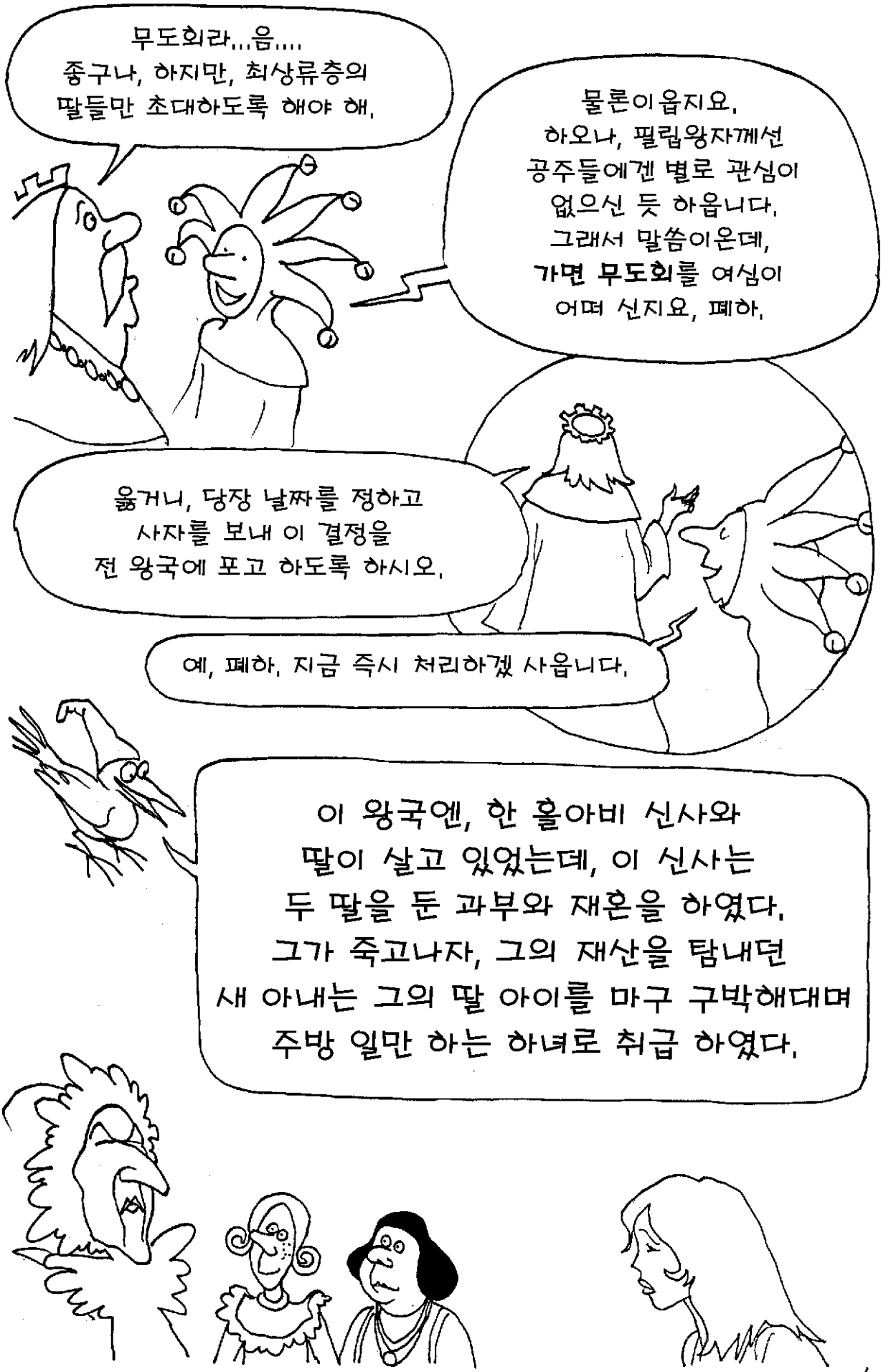
그렇다면, 너의 그 꿈의 여인은 대체 어떤 여인이냐?
버드우먼이냐? 배트우먼이냐?

점쟁이가 그러는데,
제가 첫눈에 알아볼 수
있다고 하던데요.

내 아들이 드디어
미쳤구나!

키메라를 찾고 있는 게야...
...시간은 흘러만 가는데...

폐하, 너무 염려 마옵소서.
우리 왕국에 어딘가 분명히 그런 여인이
있을 것이 옵니다.
무도회를 여시어, 이 왕국의 모든 미혼인
처자들을 초대하심이 어떠하옵니까?


무도회라...음....
좋구나, 하지만, 최상류층의
딸들만 초대하도록 해야 해.
물론이옵지요.
하오나, 필립왕자께선
공주들에겐 별로 관심이
없으신 듯 하옵니다.
그래서 말씀이온데,
가면 무도회를 여심이
어떠 신지요, 폐하.
옳거니, 당장 날짜를 정하고
사자를 보내 이 결정을
전 왕국에 포고 하도록 하시오.
예, 폐하. 지금 즉시 처리하겠 사옵니다.
이 왕국엔, 한 홀아비 신사와
딸이 살고 있었는데, 이 신사는
두 딸을 둔 과부와 재혼을 하였다.
그가 죽고나자, 그의 재산을 탐내던
새 아내는 그의 딸 아이를 마구 구박해대며
주방 일만 하는 하녀로 취급 하였다.

이 아이는 계모의 끊임없는
구박 속에 밤늦도록 힘들게
일하였는데, 늘 굴뚝에서 재떠미
(cinder)들을 청소하다 보니
그녀의 옷은 항상
누더기가 되었다.

그래서 이름이
신데렐라가 되었다.

조지왕의 전령관이군.
근데, 여긴 무슨 일이지?

실례하오,
전 조지왕의 전령관이라오.

조지 국왕폐하께서 명하시길, 이 왕국의
혼기가 찬 젊은 처자들은 모두 빠짐없이
다음달 10일에 있을 가면 무도회에 참석하라 십니다.

귀하의 처자들 앞으로
여기 3장의 초대장이 있소.

3명? 엄마, 우린
둘 밖에 없잖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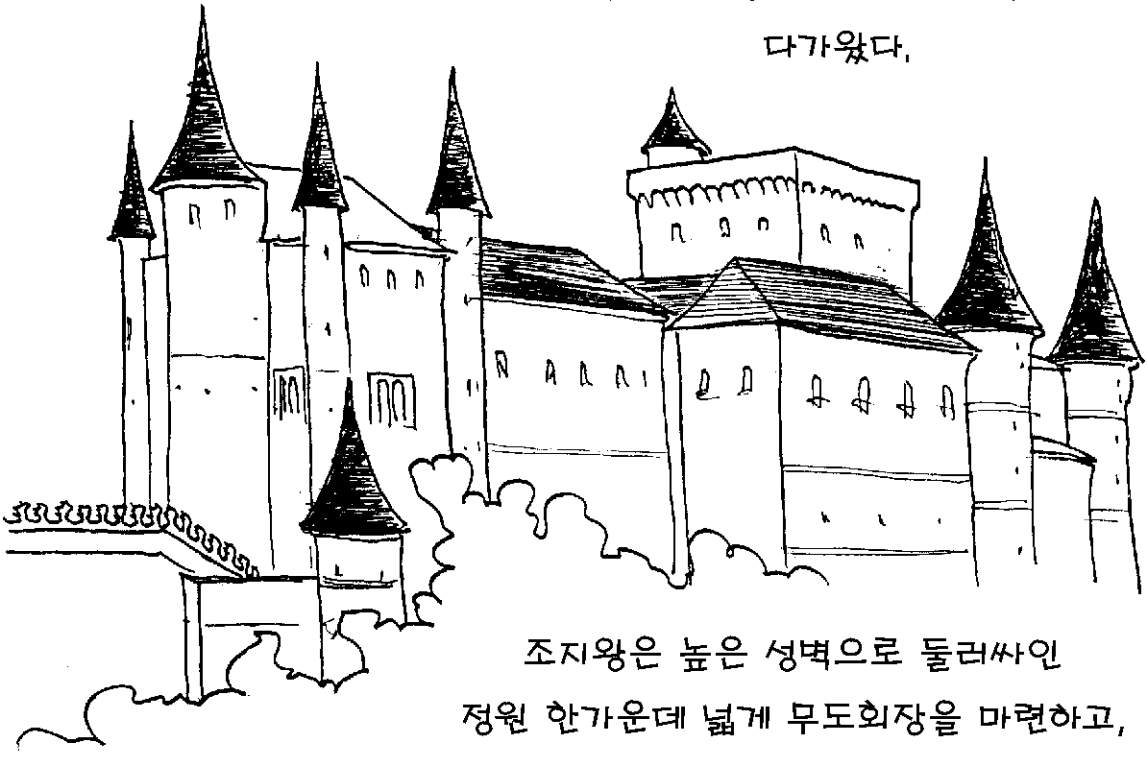
3명 맞잖아,
나까지...

그래, 신데렐라도 무도회에 갈 자격이
있지, 물론, 넌 이미 분장도
다 했는데, 그냥 가기만 하면 되겠구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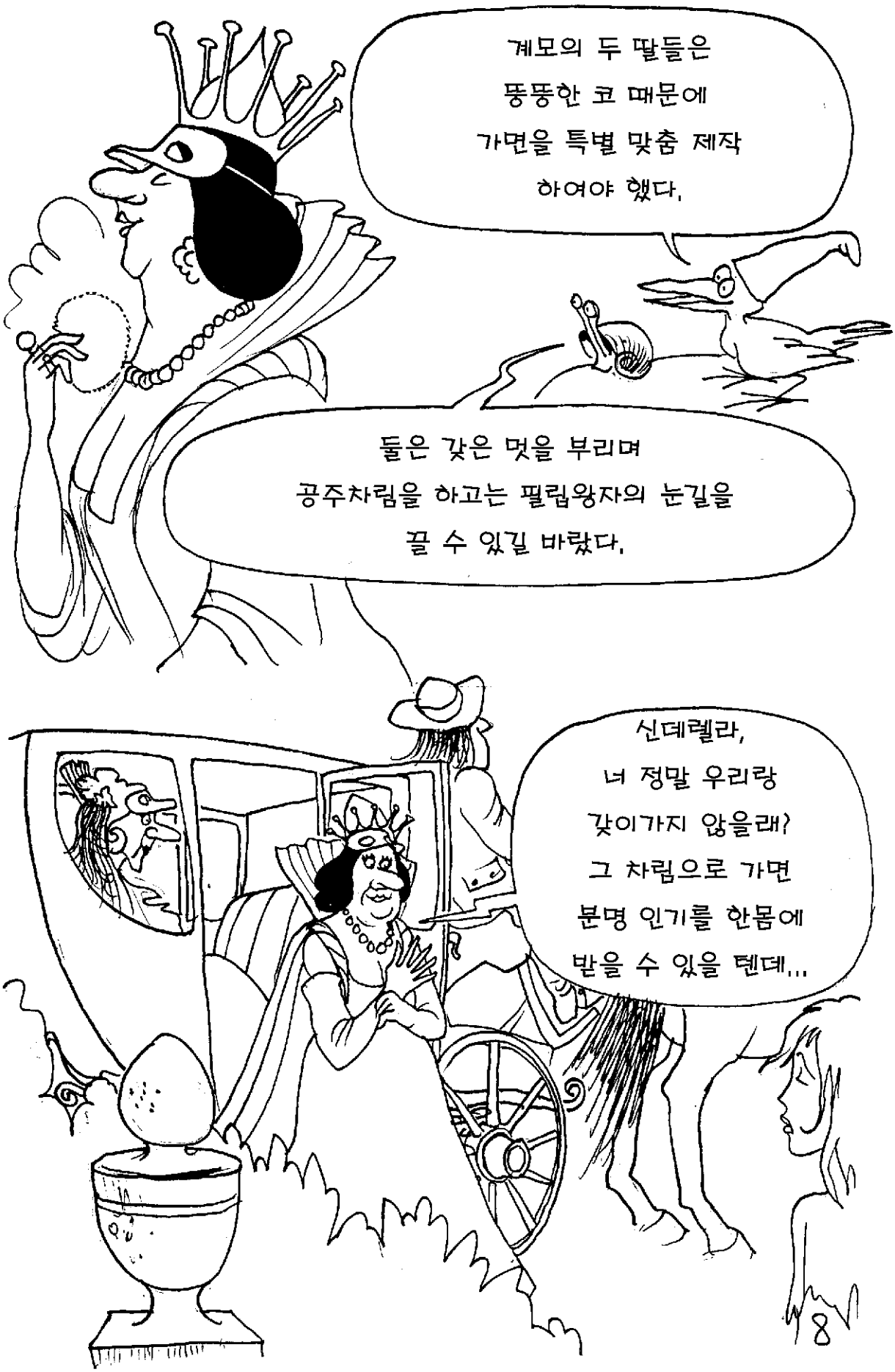
그래, 그 시녀 옷차림으로 말이지....

양가집 규수들 가운데 가장 개성있는 옷차림이 되겠는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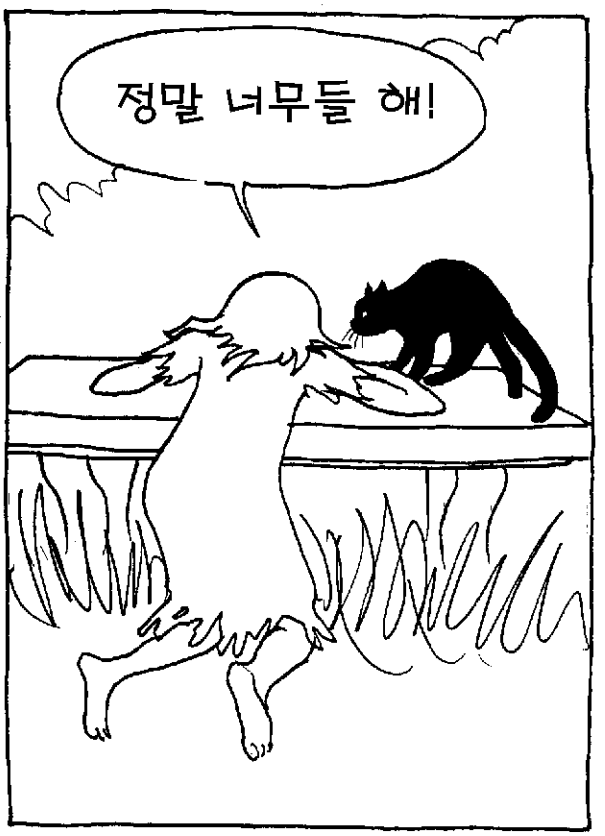
날이 가고, 드디어 무도회날이 다가왔다.



조지왕은 높은 성벽으로 둘러싸인 정원 한가운데 넓게 무도회장을 마련하고, 테이블과 등불로 무도회장을 장식 하였다.


계모의 두 딸들은
뚱뚱한 코 때문에
가면을 특별 맞춤 제작
하여야 했다.
둘은 갖은 멋을 부리며
공주차림을 하고는 필립왕자의 눈길을
끌 수 있길 바랐다.
신데렐라,
너 정말 우리랑
갖이가지 않을래?
그 차림으로 가면
분명 인기를 한몸에
받을 수 있을 텐데...

무도회는
너같은 하녀가
갈 곳이 아니지!
저런, 신데렐라는
거기 못가겠구나!


정말 너무들 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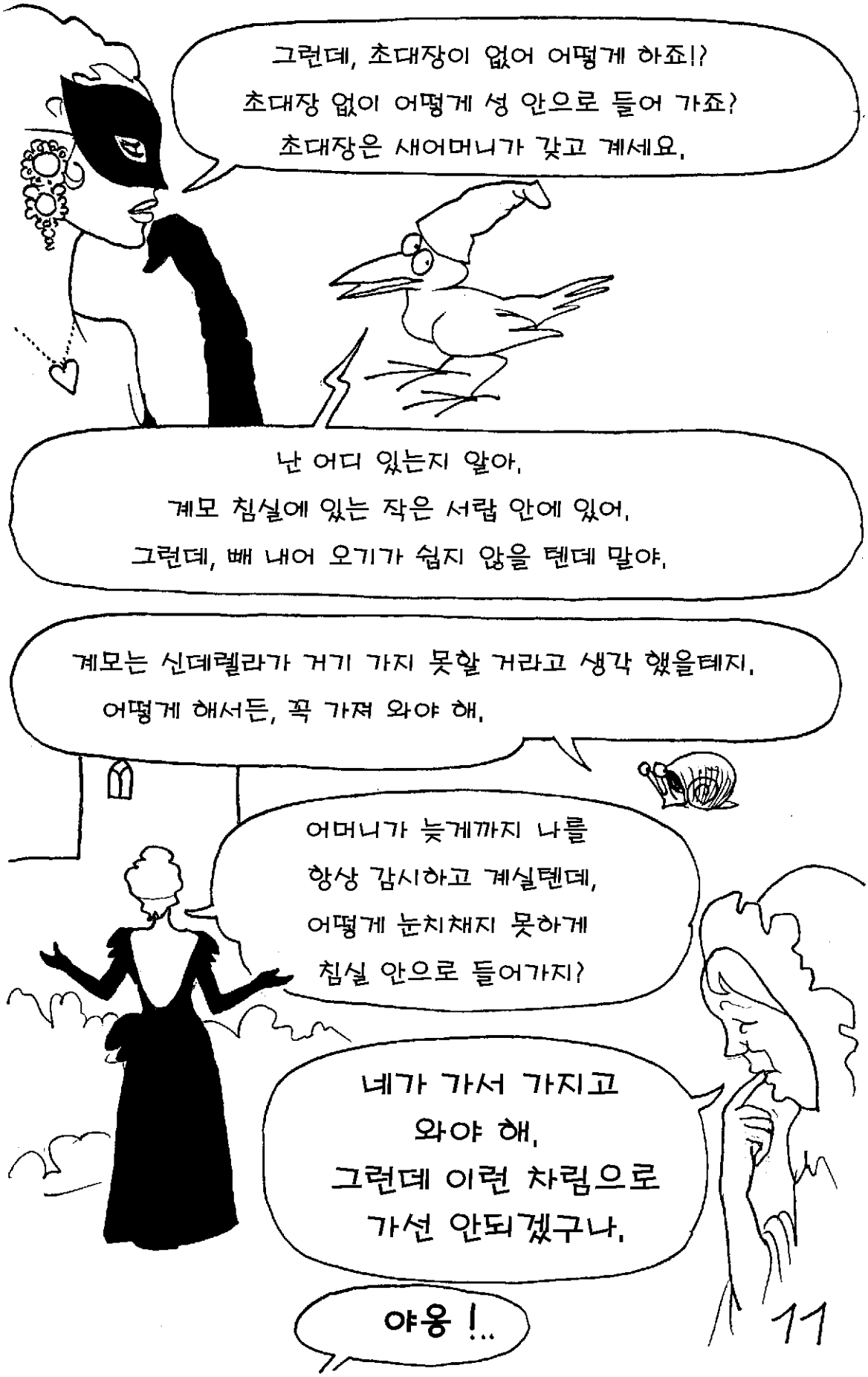
울지마...
아가...

가면 무도회라? 큰 국가 행사는 아니지마는,
그래도 널 이런 차림으로 가게 내버려 둘 수야
없지. 일어나 보거라.
내가 해결해 주마.

오,
어머니!

어디보자,
왕가에 초대 받았으니, 우아하게
잘 차려 입고 가야겠지.

실크 드레스에,
긴 데님 장갑, 벨벳 가면...
좋아. 아주 좋은데...


그런데, 초대장이 없어 어떻게 하죠!?
초대장 없이 어떻게 성 안으로 들어 가죠?
초대장은 새어머니가 갖고 계세요.
난 어디 있는지 알아.
계모 침실에 있는 작은 서랍 안에 있어.
그런데, 빼 내어 오기가 쉽지 않을 텐데 말야.
계모는 신데렐라가 거기 가지 못할 거라고 생각 했을테지.
어떻게 해서든, 꼭 가져 와야 해.
어머니가 늦게까지 나를
항상 감시하고 계실텐데,
어떻게 눈치채지 못하게
침실 안으로 들어가지?
네가 가서 가지고
와야 해,
그런데 이런 차림으로
가선 안되겠구나.
야옹 !..

그럼,
어떻게 하죠?

검은 고양이들은 밤에
안 보이지. 너도 이 고양이
처럼 변장 하면돼.

밤중에
눈에 띄지 않는
차림으로 가야 겠는걸.

앱!

어머!..

신데렐라는 검은 고양이 차림으로
어둠속에서 살모시 계모의 방으로 진입한다.

하녀 주제에
왕가의 가면무도회는 무슨...?
Ah Ah...
다 끝났어요, 어머니가
초대장을 다 태워버렸어요.
참으로
사악한 여자로군.
걱정 말거라,
내 가방 속에 요술카드가
한 가득히 있으니,

이 검은 망토를 둘러 보거라,
이것이 성벽을 넘어 궁궐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 줄것이다.
?
그게 아니라,
담을 넘으란 말야!
그러니까 저더러
성벽을 통과하란 말씀이세요?
신기하군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하지만, 이 모든것도 한가지 악세서리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지.
그게
뭐에요?
매직 구두란다.

이걸 신으면
날아서 높은 성벽을
쉽게 뛰어 넘을 수 있을
게다. 돌아 올때도 물론
마찬가지 이고, 하지만,
명심해야 할 것이 있다.
자정을 알리는 마지막 종소리가
울리기 이전에 반드시 성벽을 넘어야만 해,
자정이 넘으면 더이상 마술의
효력이 없게 되어 날 수 없게 된단다.
그럼, 어서 가거라!
고마워요,
어머니!
12번째
자정 종소리
잊지 말거라!

아, 저기 성이 보이는군!
폐하 가면 무도회가 아주 성공적으로 개최된 것 같사옵니다.
평소 멍하니 계시던 우리 필립 왕자님께서 왕국에서 가장 귀한 댁 따님들과 춤을 추느라 정신이 없으십니다.
아주 즐거워 하는구나, 가면 무도회를 매주 열어야 겠구나, 우리 필립 왕자가 사냥이나 나는 기계 말고 다른 것에도 흥미를 가질 수 있게끔 말이야.
허허, 그 녀석, 마음에 드는가 보구나.

아, 잠깐,
실례합니다,...
?
저기 저 여자...
날고 있었어!
조금 전
잔디밭으로
날아 온 것
같았는데?
와우! 당신은 배트우먼 이로군요!
박쥐 날개의 비밀을 알아 내셨나요!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이건 단지 분장일 뿐
이라구요. 제 망토가
바람에 휘날린걸 보고
착각하셨나 보네요.

아녜요, 분명 조금 아까
당신이 여기 잔디밭으로 날아
오는걸 제가 똑똑히 보았다구요.
그게 아니라, 전 이 망토를
펄럭이며 이쪽으로 뛰어오고
있었을 뿐이에요.
내가 박쥐라고 상상하면서 말예요.
어머나,
이 사람이 날 본 모양
이야. 뭐라고 둘러댄담?
가면 무도회에 온
숙녀에게 물어볼 말이
그것 밖에 없으신 가요?
춤이나 추러 가요.
이...이름이
어떻게 되십니까?
당신은 로빈훗
이시죠?
음...예...
뭐, 어쩌면요....

신데렐라는 자신 앞에 있는 남자가 필립왕자인 줄도
모른채, 그의 품에 안겨 왈츠를 추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다.
어느덧!
DONG
어머, 이런!
왜요?
시간이...?
죄송하지만, 전
지금 당장 돌아가야
해요!
돌아가다니요!?!
이제 막
시작인데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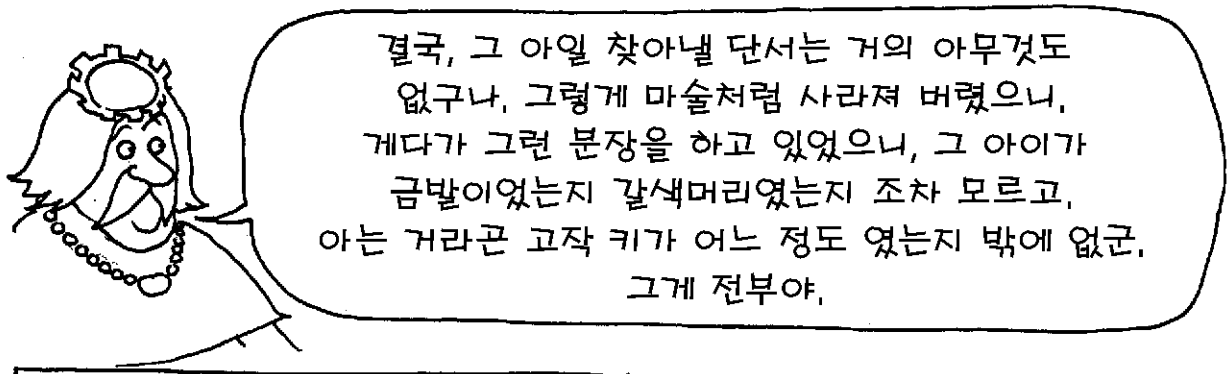
빨리 돌아가야 해요.
DONG!
말도 안돼요! 차가 필요하시면 제가 모셔다 드릴 게요.
잠깐만요! 그 쪽으로 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테라스 밖에, 출구는 반대 방향이라구요!?!
DONG
다시 만났으면 하는데, 어딜가면 당신을 만날 수 있나요? 돌아와요! 그쪽으로 가면 아무것도 없다구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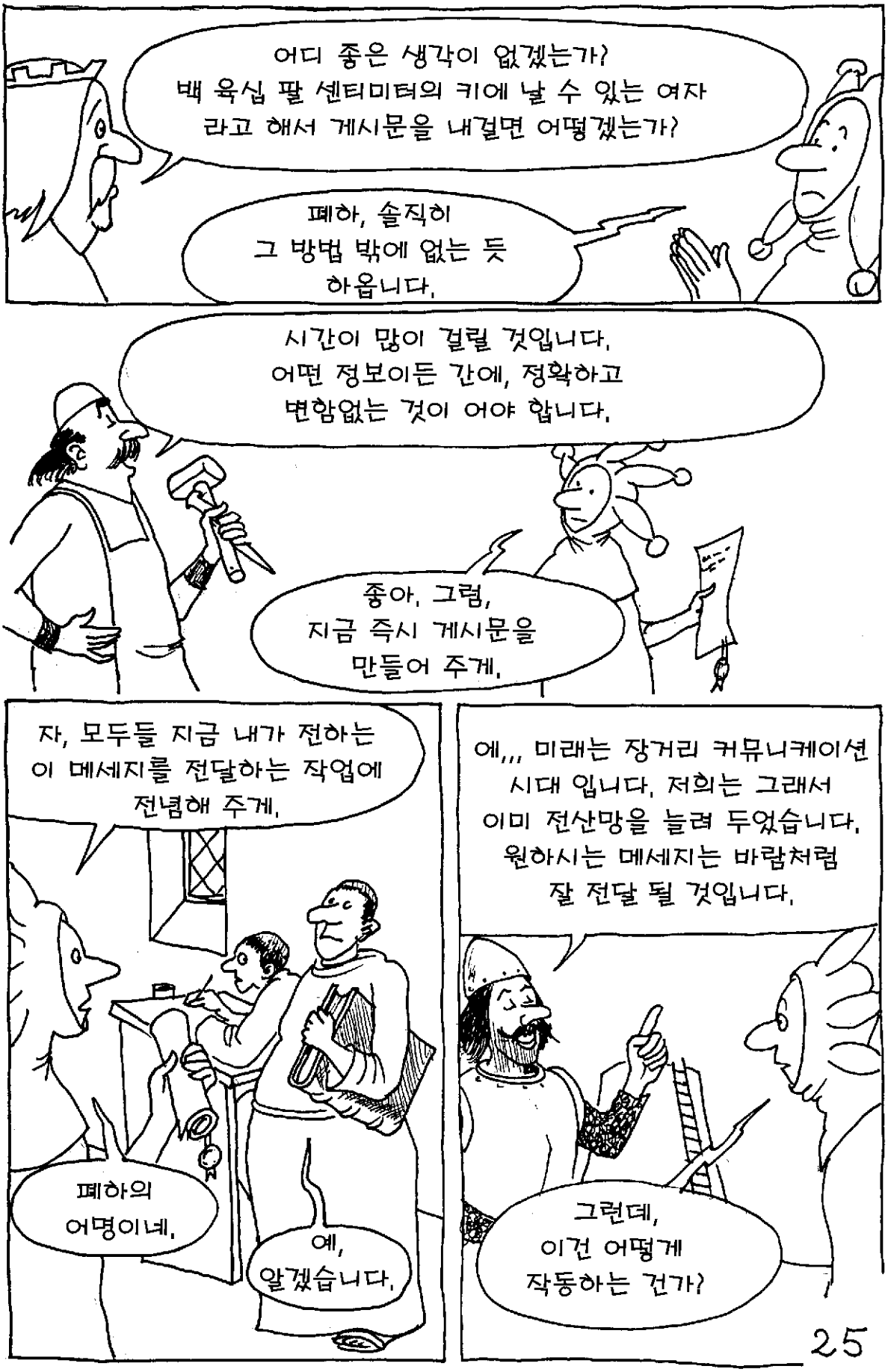
OH!
사라져 버렸어!
이 버전에선, 신데렐라는 돌아가는
계단에서 구두를 잃어버리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왕자는 그녀를
다시 찾게 될까?
DONG!
휴우!
정확히 마지막 자정
종이 울리기
직전에 도착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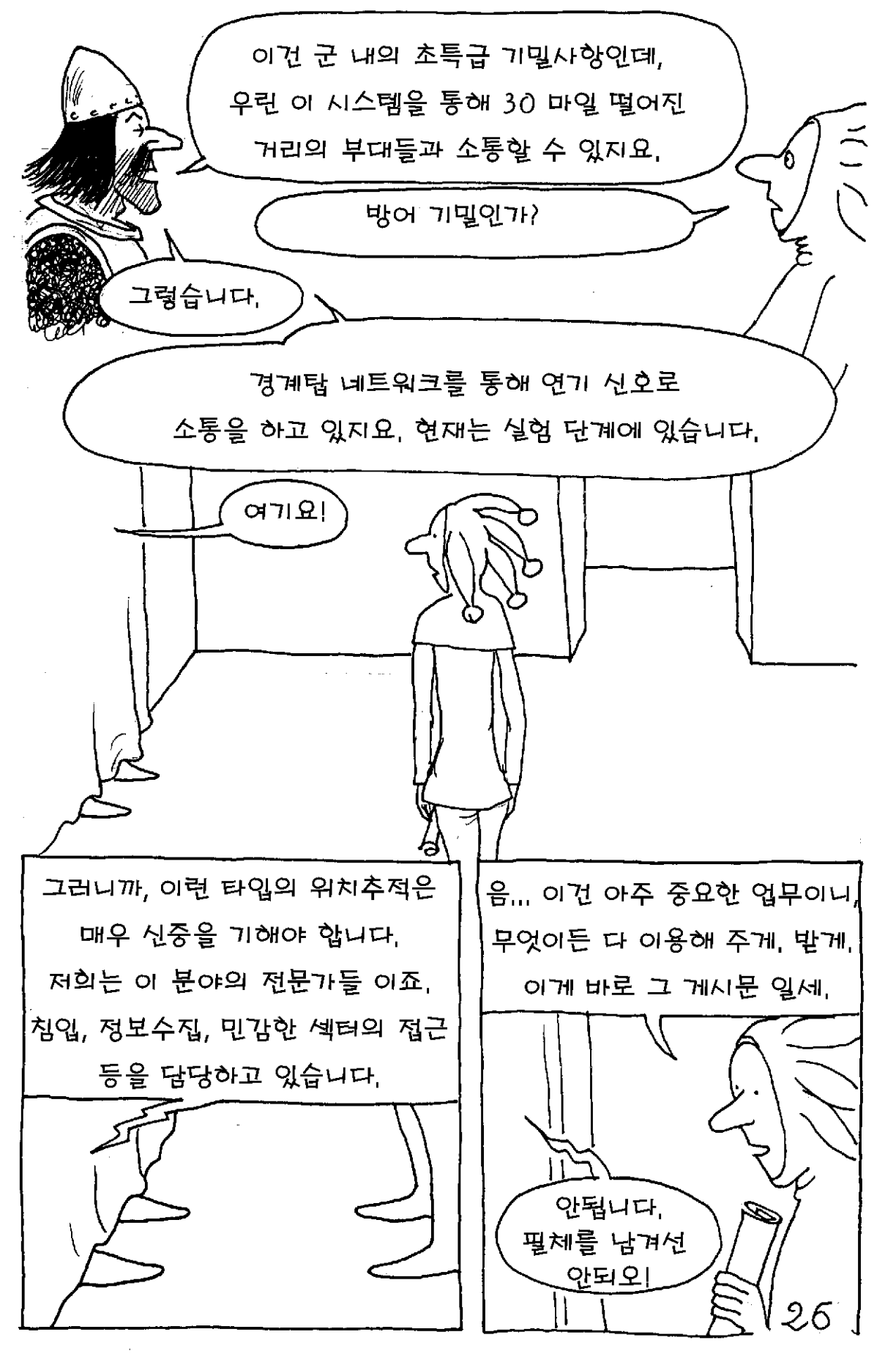
그런데, 그 기사님은
누구실까? 그건 아마도
죽을때까지 모르겠지.

신데렐라! 벌써
한시간째 널 부르고 있다구.
나 차 한잔 갖다 줘!
잡이 안 와서 말야.

다음날, 궁궐은 그 나는 여인 얘기로 시끌 벅적하다.




어디 좋은 생각이 없겠는가?
백 육십 팔 센티미터의 키에 날 수 있는 여자
라고 해서 게시문을 내걸면 어떻겠는가?
폐하, 솔직히
그 방법 밖에 없는 듯
하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릴 것입니다.
어떤 정보이든 간에, 정확하고
변함없는 것이 어야 합니다.
좋아. 그럼,
지금 즉시 게시문을
만들어 주게.
자, 모두들 지금 내가 전하는
이 메세지를 전달하는 작업에
전념해 주게.
폐하의
어명이네.
예,
알겠습니다.
에,,, 미래는 장거리 커뮤니케이션
시대 입니다. 저희는 그래서
이미 전산망을 늘려 두었습니다.
원하시는 메세지는 바람처럼
잘 전달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어떻게
작동하는 건가?


이건 군 내의 초특급 기밀사항인데,
우린 이 시스템을 통해 30 마일 떨어진
거리의 부대들과 소통할 수 있지요.
방어 기밀인가?
그렇습니다.
경계탑 네트워크를 통해 연기 신호로
소통을 하고 있지요. 현재는 실험 단계에 있습니다.
여기요!
그러니까, 이런 타입의 위치추적은
매우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저희는 이 분야의 전문가들 이죠.
침입, 정보수집, 민감한 섹터의 접근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음... 이건 아주 중요한 업무이니,
무엇이든 다 이용해 주게, 받게,
이게 바로 그 게시문 일세.
안됩니다.
필체를 남겨선
안되오!

알겠습니다.
지금 즉시 찾아
보겠습니다.
?
와우... 아주 영리하군.

어디보자...
분홍색으로 칠해야 겠군,
멀리서도 알아볼 수 있도록,
그럼 슬슬 시작해 볼까,
좋아, 이젠 이걸 다
곳곳에 붙이는 일만
남았어,
"ㅈ" 자를 어떻게 쓰지?
한편, 필립왕자는 단서를 찾고 있는데...

자자, 어서..
조금만 더 가면 돼.

이걸 대수도원장님께
말씀드렸다간
난 죽었구나!

그래도 글은 간신히 읽을 수가 있겠어.
다행히도 물감을 챙겨 왔으니,
얼룩진 글자들을 고칠 수 있겠구나.
자, 마음을 가다듬고....

에이전트 X-27,
이 메세지를 전해주게.
예,
알겠습니다.
야, 굼뱅이!
바람이 불고 있다!
신장 백 오십 팔 센티에
놀 수 있는 젊은 아가씨를
찾아보게.
백칠십팔 센티에
돌 줄 아는
젊은 아가씨를
찾으라는 데요.
별 희안한
여자를 다 찾는군!

아봐, 필버트,
뭘 좀 알아냈나?
대체 뭐라고
쓴건지 알 수가 없군.
뭘 좀
알아냈나?
좀 돈
아가씨
폐하, 예, 예, 잘되어가고 있긴합니다만,
계속해서 찾아야 합니다요.

이 문자가 마술이야!
이건 머린 영감님만이 알 수 있어.
아, 필립왕자님. 아주 오랜만이군요.
눈 앞에 없으신 건 뭡니까?
아, 안경이라는 거지요. 눈을 더 잘 볼 수 있게 해주지요. 때로는 이것을 통해 미래를 볼 수도 있답니다.

시간이란 수정과 같아서 그것을 통해 두가지 다른 면을 볼 수가 있지요

그러나, 미래로부터 무언가를 가져온다는 것은 너무나 큰 무질서를 야기시키지요.

머린 영감님, 제가 날 수 있는 여자를 만났습니다. 근데, 그게 가능한가요?

잠시만요. 제가 뭘 좀 보여드릴 것이 있는데,,, 그게 어디 갔더라?

우리 성당의 고위 성직자들이 쓴 모자를 보신적이 있지요?

우린, 과거로부터 많은 악세서리들을 빌려 왔지요. 예컨데, 그들이 들고 있는 사목은 로마의 점쟁이들이 사용하던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전 우리 주교들이 정말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인지 가끔 의심하곤 하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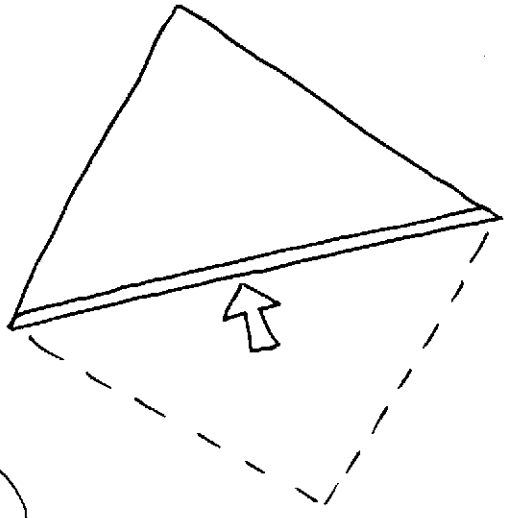
모든 물건에는 의미가 깃들어 있답니다. 그들의 모자는 어디서 나온 것일까가 항상 궁금했었는데, 그 대답은 바로 먼 미래에 관한 책 속에 있더군요.

그것이 바로 날으는 기계였습니다.

설마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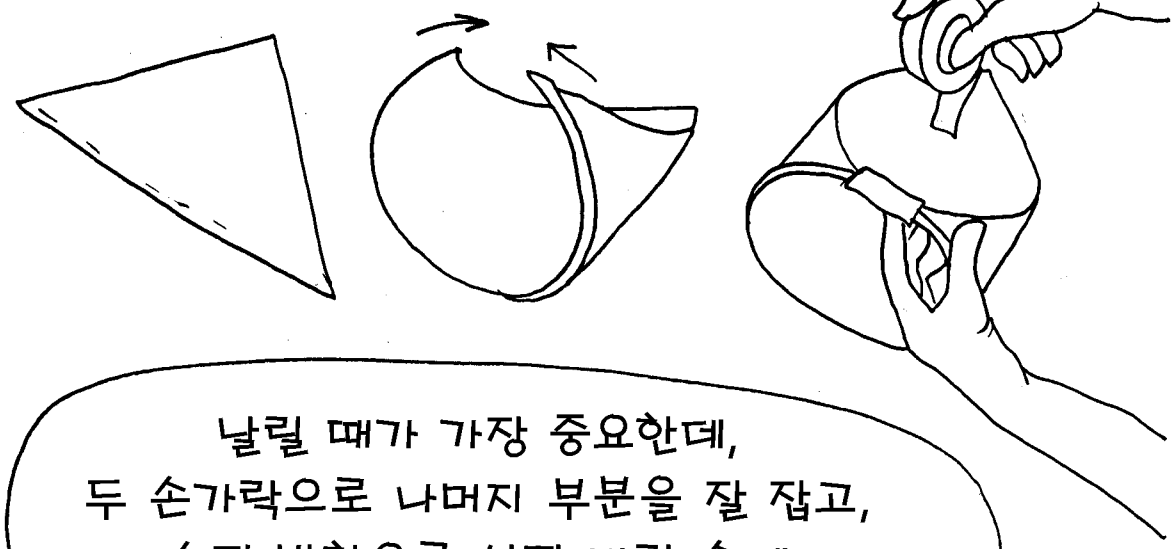
맞아요. 제가 증명해 드리죠.

네모난 종이를 한장 줘 보십쇼. 이렇게 대각선으로 돌돌 말아 보십쇼. 단단하게 잘 조인면서...끝에서 부터...



그러면, 이 말린 가장자리는 정확히 대각선으로 일치하게 되지요.

그 다음엔, 양 끝을 이렇게 동그랗게 감아서 포갠 다음 이것으로 붙여보십쇼. 이건 제가 미래여행 중에 가져온 경이로운 물건인데, 접착 테이프라고 한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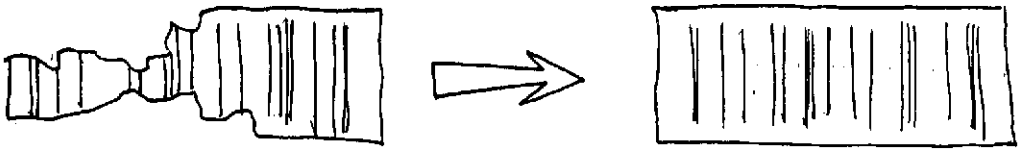


날릴 때가 가장 중요한데,
두 손가락으로 나머지 부분을 잘 잡고,
수평 방향으로 살짝 바람 속에
띄워 줍니다.

높은 절벽에서 조심스럽게 잘 날려주면, 아주 멀리까지 날아 간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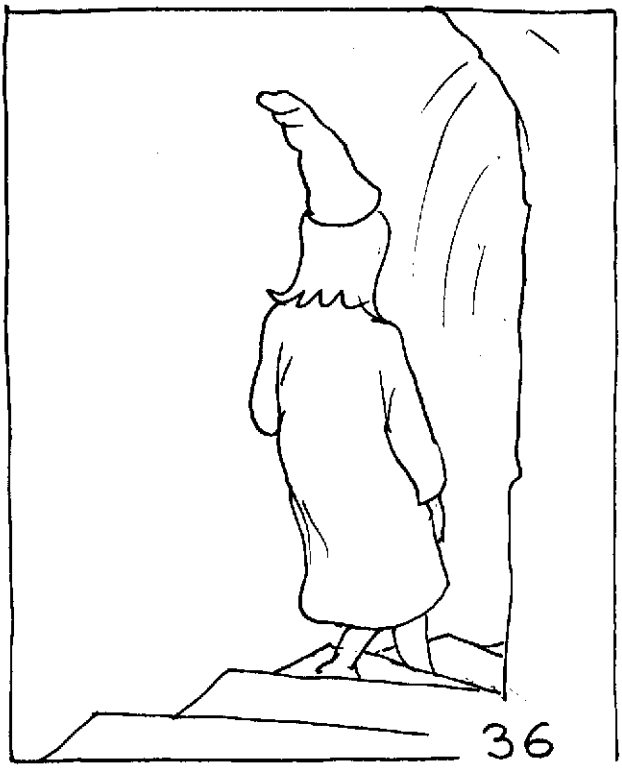
그건 그렇고, 다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여인 얘기를 좀 더 하죠! 그 아가씨가 날면서 이걸 떨어뜨렸는데, 이게 혹시 마술을 부리는 문자인가요? 우리 강아지가 반을 뜯어먹어서 별로 큰 효과는 없겠지만.

이건 문자가 아닙니다. 미래 사람들은 이것을 **바코드**라고 한답니다. 한 부분이 찢겨졌다고 해도 읽을 수만 있으면, 이 안에 든 메세지는 알아 낼 수 있지요.



그럼, 이 마술 코드를 풀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헌데, 왕자님이 계시면 안될 수도 있습니다. 잠깐만, 혼자 실험실 좀 다녀 오겠습니다.



메세지는, 검은 데님, 사이즈: 34, 199프랑 입니다.
미치지 않고서야 어디 이 보다 더 많은 돈을
지불 할 수가 있을까요?
딱!
알았다! 그녀 신발
사이즈가 34라는 겁니다.
가볼게요.
무도회에 왔었던 모든
아가씨들 중 34 사이즈
구두를 신는 아가씨들을
찾아 보시오.
그리고, 그날 신었던
구두도 가지고 오라고
전하시오!

얼마 후
저도
34 신는데요,
죄송합니다만,
그 구두가 아닙니다,
제 딸이 좀 멍청해서요,
얘 이건 네가 그날 신었던
구두가 아니잖니!
저도 34 사이즈
신어요!

필립 왕자님!
!...
아, 저거예요! 그날 제 딸이 신었던 검은 데님
구두가 틀림없어요. 이 하녀가 그걸 훔쳐간 거라구요.
한참 찾고 있던 중인데. 얘, 어서 그 구두 이리 내놓지 못하겠니.

흥, 그렇게는 안되지!
잠깐!
신데렐라가 지금... 배트우먼으로 변신 한다 이거야!

맞아, 저 여자가
내가 찾던 배트우먼이야!
맙소사!?!

이 여인만이
하늘을 나는 비밀을
알고 있어.
전 어떤 모험도
함께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